

문화 : 문화일반

"한국 디자인 위상 알린다"...'한국 아트 퍼니처 선구자' 최병훈 뉴욕서 전시

중앙일보 입력 2025.03.27 11:00

이은주 기자

구독



최병훈, '태초의 잔상(Afterimage of beginning 024 620', 2)024, 물푸레나무, 블랙 우레탄, 알루미늄, 자연석. [사진 최병훈 작가 제공]

한국 아트 퍼니처의 선구자 최병훈(73·홍익대 명예교수)씨가 뉴욕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이하 벤다)에서 27일부터 5월 23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전시 제목은 '침묵의 목소리(Voice of Silence)'로, 최씨가 뉴욕 벤다에서 전시를 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교수와 미대 학장을 역임한 최씨는 2017년 8월 정년퇴직한 뒤 가구 디자인과 조각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전문 갤러리 벤다와의 인연은 각별하다. 그는 디자인 전문 갤러리인 이곳에서 2014년, 2016년 전시를 열었다. 이 전시는 2020년 휴스턴 미술관에 그의 돌 조각 작품 '선비의 길'이 영구 설치되는 기회로 이어졌다.

휴스턴 미술관 큐레이터가 벤다에서 열린 전시를 눈여겨 보았고, 후에 미술관 측에서 신관을 건립하며 최씨에게 작품 제작을 의뢰했다. 미술관에서 가구 디자이너인 최씨에게 조각 작품 제작을 의뢰한 것은 파격이었다. 그의 작품이 디자인의 영역을 넘어 미술계에서 '작품'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시 휴스턴 미술관으로부터 작품 제작 의뢰를 받은 작가로는 올라퍼 엘리아슨, 아이 웨이웨이 등이 있었다.

한편 지난해에는 카타르 국립박물관 중앙 광장에 최씨가 제작한 현무암 벤치와 테이블 등 작품 10점이 영구 설치됐다.

The JoongAng



최병훈, '태초의 잔상(Afterimage of beginning) 024 620', 2024, 물푸레나무에 블랙 우레탄, 알루미늄, 자연석. [사진 최병훈 작가 제공]

The JoongAng



최병훈, '태초의 잔상(Aftermage of beginning)' 024 617 2024, Basalt(현무암). 313x610x690cm. [사진 최병훈 작가 제공]

이번 뉴욕 갤러리 전시에서 최씨는 3m가 넘는 돌 벤치 3점과 목재와 자연석으로 제작한 장 2점을 선보인다. 벤다는 홈페이지에서 이번 전시를 알리며 "최병훈은 한국의 전통 공예와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해 돌과 나무를 재료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의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미니멀한 디자인을 통해 한국 문화유산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며 "그가 한국을 벗어나 해외에서 돌과 나무를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돌과 나무는 각각 역사와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며 "제가 예술가로서 하는 일은 서로 다른 두 재료의 대비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고, 자연에 내재한 고요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서울 가나아트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벤치에 앉은 최병훈 작가. 신인섭 기자

현재 뉴욕에 머물고 있는 최씨는 27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문학과 영화, 대중음악 등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가운데 디자인 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몹시 아쉬웠다"며 "이번 전시가 디자인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벤다는 이번 전시에 이어 오는 5월 열리는 테파프(TTEFAF)뉴욕과 11월 열리는 디자인 마이애미(Design Miami)에도 최씨의 작품을 출품한다.

최씨는 1980년대부터 한국 전통 공예와 현대 디자인을 융합한 작업을 선보여왔다. 그의 작품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미국), 비트라 디자인미술관(독일), M+미술관(홍콩) 등 세계 유수 미술관에 소장됐다.

이은주 문화선임기자 julee@joongang.co.kr

hello! Parents



예상키보다 5cm 더 키웠다 ‘초4 초경’ 늦춘 주사의 진실



머스크 “내가 정상일 것 같아?” 학폭당한 소년, 우주를 품다



“2000만원으로 키 5cm 산다” 4살부터 맞는 성장주사 진실

1/10

- # 최병훈
- # 뉴욕
-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 아트퍼니처 작품
- # 휴스턴 미술관
- # 프리드먼 벤다
- # 선비의 길
- # 아트 퍼니처
- # 자연석
- # 현무암
- # 물푸레나무
- # Friedman Benda

4

1

zzub****

2025.03.28 00:12

K한류의 다음 버전은 공예와 디자인이 될거라 단정해봅니다!!

2 0

댓글 작성하기

함께 본 기사

보아 "인생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취중 라방 논란 후 심경글

2025.04.16 10:45

101m 기와 7만장 싹 바꿨다...국보 종묘, 5년 만에 돌아왔다

2025.04.20 20:10

자동차도 굶주림 사는데...영웅시대, 삼다수 분노한 이유

2025.04.17 14:46

당신을 위한 추천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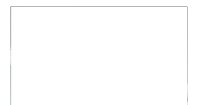
The JoongAng



"엄마 때리지마, 아빠" 녹음증거 내놓자 남편은 본성 드러냈다[이혼의세계]

Innovation Lab

2025년 봄 트렌드 스페셜



The JoongAng Plus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스포츠

라이프

피플

스페셜

The JoongAng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청소년 보호정책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우) 03909 전화 : 02-751-5114 등록번호 : 서울 아
01013 등록일자 : 2009.11.2 발행인 : 박장희 편집인 : 고현곤

사업자명 : 중앙일보(주) 사업자등록번호 : 110-81-00999 대표자명 : 박장희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0-서울마포-3802

Copyright by JoongAng Ilbo Co., Ltd. All Rights Reserved